국토교통부		보	도 자 료	국민의 대답을 위한 정부하신 보다 나은 정부			
		배포일시	2019. 5. 9.(목) 총 3매(본문3)				
담당 부서	주택기금과	담 당 자	· 과장 황윤언, 사무관 김진호, 주무관 임태진 · ☎ (044)201-3351, 3343				
보도일시		2019년 5월 10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5.9(목) 11:00 이후 보도 가능					

국토부.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추진

- ▶ 예비당첨자를 확대하여(80%→5배수), 1·2순위 신청자의 당첨기회 확대
- ▶ 청약자격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부적격 당첨자 감소 유도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신규 청약 단지에서 **무순위 청약** (미계약분 공급)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현금부자·다주택자가 일부 물량을 사들이는 상황(이른바 '줍줍' 현상)과 관련하여, 예비 당첨자 비율 확대 등을 통해 무순위 청약을 개선(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신규 주택공급(청약)시 1·2순위 신청자 중 가점순(가점제) 또는 추첨(추첨 제)에 의해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가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취소되어 남은 물량을 무순위청약으로 공급. 무순위청약은 청약통장 보유, 무주택여부 등 특별한 자격제한 없이 신청 가능
- □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80%**(기타 40%이상)까지 선정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앞으로 **5배수로 대폭 확대**하여 청약자격을 갖춘 실수요자(1·2순위)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 투기과열지구 : 서울, 과천, 분당, 광명, 하남, 대구수성, 세종(예정지역)
 -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되어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 으로 기대된다.

○ 예비당첨자 확대는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아파트투유) 개선(약 2주 소요)이 필요한 사항으로, 시스템으로 반영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19.5.20. 시행예정).

< 신규주택 공급 절차(투기과열지구 내) >

- ① 신청자 중 공급 순위(1·2순위), 가점, 추첨결과 등을 고려 당첨 자 선정·계약
- 미계약 ⇒
- ②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선정
 * 부적격 취소, 미계약 물량 등
 예비당첨자 선정비율(투기과열):
 <종전> 공급물량의 <u>80%</u> →
 <개선> 5배수(500%)

미계약

- ③ 무순위 신청자(성년) 중추첨 선정* 아파트투유추첨
- □ 이와 함께, 국토부는 사업주체 홈페이지나 모델하우스 등에 **청약** 자격체크리스트 및 필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게시)토록 하여,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부적격자 발생을 줄이고, 신청자가 사전에 **청약자격,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 청약시스템 이관(금결원→감정원, '19.10)과 연계,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서비스 개시 이후에는 부적격 청약자 최소화 가능
- □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미계약물량의 발생 및 공급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무주택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붙임 1. 예비당첨자 확대 관련 Q&A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김진호 사무관(☎ 044-201-335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예비당첨자 확대 관련 Q8A

- 1. 예비당첨자 확대는 언제, 어느 지역부터 적용되는지?
- □ 현행 주택공급규칙(제26조)은 예비당첨자 선정을 **공급물량의 4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확대 가능
- □ 금번 비율확대는 법령 개정 없이 시스템(아파트투유) 개선 후 즉시 추진되며, 5월20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단지부터 적용
 - 지역적으로는 **무순위 물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은 **투기과열** 지구에 한하여 **적용할 계획**
 - 2. 예비당첨자 물량을 왜 5배수로 확대하는지?
- □ 무순위 청약제도 도입 이후 진행된 5곳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5.2:1로 공급물량 대비 5배의 적정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
 - 이에 맞게 예비수요도 공급물량의 5배수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 (부적격자 및 계약포기자 등을 감안시 적정한 수준임)
 - 아울러, 5배수가 넘어갈 경우 사업주체에게 과도한 부담 우려 (추가 서류검증 및 청약 일정연장 우려)
 - < 참고. 무순위 청약제도 도입 후 청약단지 접수현황(5곳, 19.2월~現)

	단지명					
	위례포레스트 부영	홍제 해링턴 플레이스	평촌 래마안 푸르지오	태릉 해링턴 플레이스	호반써밋 주상복합	합계
공급물량	566	419	659	560	30	2,234
접수현황	1,334	3,370	1,518	5,108	329	11,659
청약경쟁률	2.35	8.04	2.30	9.12	10.96	5.21